

# 광주교육청, '남북교육교류

# 협력 위한 국제포럼' 성료

### 자유로운 '토크콘서트' 형식 부드럽게 진행



10월 30일부터 31일까지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에서 열린 광주교육청의 광주학생독립운동 90주년 기념 '남북교육교류 협력'을 위한 국제포럼'이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호평을 받으며 시민, 학생 등 500여명의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최근 경색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남북관계의 해법을 '교육 교류'에서 찾기 위해 마련된 이번 포럼에서는 다소 무거운 수 있는 주제인 남북교류 문제를 자유로운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부드럽게 진행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과거 통일 이전 동독과 서독을 오가며 학생 교류의 물꼬를 튼 독일 학교장의 경험담을 비롯해 국

내의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한 국제학술행사는 주제의 다양성과 심도 깊은 토론으로 포럼의 수준을 한층 높였다는 평가다.

북한의 주요 명소 촬영 영상을 위해 마련된 '통일 VR(가상현실) 체험'에 많은 사람이 몰리는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인기를 모았다.

행사 첫날인 30일 오후 방송인 김미희의 사회로 진행된 토크콘서트에는 300여석의 객석이 조기에 신청 마감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 평화롭게 함께 더불어 사는 통일, '교육으로부터!'를 주제로 열린 토크콘서트는 김미희씨의 재치 있는 입담과 패널들의 진솔한 대화로 객석의 웃음과 호응을 이끌었다.

이날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광주학생독립운동은 광주에 국한되지 않고 북쪽까지 확산되었다. 그 정신을 완성하는 게 통일이고 교육이 자기 몫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31일에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한 국제학술행사가 3가지 세션으로 나뉘어 이어졌다.

'미래사회와 지속가능한 평화' 제1세션에서는 빌리 아이젤레 전 독일 뮌헨 피르슈테리트 교장의 '동서독 학생교류 사례와 의미' 주제발표가 큰 주목을 받았다. 아이젤레 교장은 과거 통일 독일 이전, 동독과 서독 간 상호 학생교류를 진행한 경험담을 전하며 남북 학생교류 필요성을 강조했다.

부대행사로 마련된 북한의 주요 명소 가상현실 체험코너 '통일 VR'은 체험객들로 행사 기간 내내 북적였다.

광주시교육청 현석용 정책기획과 과장은 "행사장을 찾아준 많은 분들과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하느라 애쓴 관계자 모두에게 감사사를 전한다"며 "이번 남북교육교류 국제 포럼이 광주의 학생과 교사, 시민들에게 광주학생독립운동이 가진 정의와 용기 등 광주의 소중한 가치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마중물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인호 기자

## 화순공공도서관, '제10회 울려라! 독서골든벨대회' 개최



화순공공도서관은 10월 30일 화순 관내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제10회 독서골든벨대회'를 운영하였다.

화순오성초등학교 오성마루에서 진행된 이번 대회는 관내 초등

학교 중 12개 학교, 91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여 골든벨을 울리기 위한 도전을 이어나갔다.

화순공공도서관은 독서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2010년부터 독서골든벨대회를 운영하여 올해로 10년째를 맞이하였다.

특히 이번 대회는 전남도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에서 선정한 단계별 권장 도서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의 책을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후의 1인이 된 학생은 최우수

상인 전남도교육감상을 수상하였으며 2명의 학생들은 우수상인 화순교육지원청교육장상을, 5명의 학생들은 장려상인 화순공공도서관장상을 수상하였다.

박경석 화순공공도서관장은 "학생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뿌듯하며, 이번 대회가 어린이들에게 책을 정독하는 습관을 길러주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고 전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 구례교육지원청, 전문적학습공동체 역량 강화 연수

구례교육지원청이 10월 29일 대회의실에서 구례 관내 초·중 전문적학습공동체 교직원 20여명을 대상으로 성장과 역량 강화를 위한 퍼실리테이션 연수를 실시했다.

이날 퍼실리테이션 연수에서는 다양한 토론·토의 기법을 활용하여 △전문적학습공동체 경험 나누기 △지속가능한 전문적학습공동체 활성화 방안 △전문적 학습공동체 지원체계 구축 △2020

년 나의 실천 등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전문적 학습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구성원의 자발성과 협력적 소통 △현장 맞춤형 연수 강화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시간 확보 △연수 지원 인력풀 구축 △주제 중심의 전문적학습공동체 형성 등을 제시했다.

연수에 참여한 한 교사는 "이번 연수를 통해 전문적학습공

체 운영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게 됐고, 2020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구례교육지원청은 이번 연수에서 제안된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반영해 전문적학습공동체의 활발한 운영과 수업 혁신을 통해 학생들의 참 배움과 성장이 일어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광양마동초, 전통문화와 함께한 수련활동 '눈길'



광양마동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이 10월 24일과 25일, 1박 2일간 특별한 수련활동을 다녀왔다.

전남도교육청 산하 구례청소년수련장에서 이뤄진 이번 수련활동은 학생들이 직접 식사 준비도 하고 전통예절을 바탕으로 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호연지기를 기르고 우리 국악의 즐거움과 흥을 경험하는 기회가 됐다.

전통 문화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수련활동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소리북, 장구, 판소리, 강강술래 등의 활동에 각각 참여해 기본 소리와 장단을 익히고 모두 강단에 모여 합주까지 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또한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산행과 아침 산책, 명상, 쫓붙이식 등의 활동은 학생들이 자신에게 온전히 집중하고 자신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기도 했다.

특히 학생들이 직접 식사를 준

비해서 먹고 정리하는 과정은 학생들에게 우리가 음식을 만들고 마무리까지 하는 일이 쉽지 않음을 알게 해줬다.

학생들은 이번 수련활동을 통해 부모님에 대한 감사, 한 끼 식사에 대한 소중함, 주변 친구들과의 연대감 등을 느끼며 함께 살아가는 데에는 협동심과 배려심이 필요함을 깨달았다.

이번 수련활동에 참여한 5학년 학생은 "쉽지는 않았지만 친구들과 만들어 먹었던 음식도 맛있었고, 잘 알지 못했던 전통 문화를 직접 경험해보니 생각보다 즐겁고 재미있었다"는 소감을 밝혔다.

장완표 교장은 "이번과 같은 주제가 있는 수련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에게 알맞은 진로를 찾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전통문화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뿐만 아니라 부모님과 주변 친구들과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전남교육청, 취업역량강화 면접 캠프 운영

전남도교육청이 직업계 고등학생들의 취업역량을 길러주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은 10월 30일~31일과 11월 5일~6일 2기에 걸쳐 각각 1박2일 일정으로 '2019. NCS기반 취업역량강화 면접 캠프'를 운영한다. 급속화순리조트에서 진행되는 이 캠프에는 취업 희망하는 도내 특성화고/대이스터고 2, 3학년 학생 200여 명이

참가한다. 이번 캠프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공인 NCS 기업활용 컨설팅 전문가 및 고용노동부 선정 면접 공식강사를 초청해 진행된다.

도교육청은 이 캠프에서 NCS 기반의 지원분야 설정과 직무 이해 실습, 입사서류 작성 사례 특강, 1분 자기소개 요령 특강 및 실습, 인성직무역량 종합면접 특

강, 팀별 종합모의면접 등 실습 위주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히, 실제 면접시험을 앞둔 3학년 학생들은 캠프 참가자 전체가 참여한 가운데 종합모의면접을 치름으로써 그동안 준비한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또, 모의면접과 개인별 집중 피드백을 통해 마지막 관문에 대한 협력 의지를 다진다. 2학년 학생들도 3학년 선배들의 모의면접을 진지하게 참관하면서 취업에 대한 역량을 함양하게 된다.

